우암학원 창학 70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566호 1판 | 1952년 4월 20일 창사 | 69 | 2021년 8월 5일 목요일 | 음력 6월 27일 | kwangju.co.kr

여자배구 불꽃 투혼…지친 국민에 '4강 청량제'

5세트 접전 세계 4위 터키 꺾어
김연경 양팀 최고 28득점 폭발
1976년 이후 45년만에 메달 노려

4일 일본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8강 한국과 터키의 경기에서 승리, 4강 진출에 성공한 한국의 김연경 등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경의 '마지막 무대'는 끝나지 않았다.

한국여자배구팀이 4일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8강전에서 터키를 세트 스코어 3-2(17-25 25-17 27-25 18-25 15-13)로 꺾었다. 〈관련 기사 18, 19, 20면〉

한국이 터키를 제압하며 9년 만에 올림픽 4강행을 이뤘다.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랭킹 13위 한국이 4위 팀을 잡은 드라마틱한 승부였다. 국민은 무더위와 코로나19 시름을 한꺼번에 털어낸 최고의 승부로 꼽았다.

1차 목표였던 8강을 넘어 4강까지 진출한 한국은 타깃을 재설정했다. 1976년 몬트리올 대회 동메달 이후 45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노린다.

김연경은 양 팀에서 가장 많은 28점을 올렸다. 5세트에 종지부를 찍는 득점을 성공시키는 등 고비, 승부처마다 득점을 쏟아냈다. 그는 '캡틴'으로 선수들을 하나로 묶고, '에이스'로 점수를 쌓으면서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 두 경기를 추가했다.

'한일전'의 감동과 긴장감이 그대로 재현된 명승부였다. 한국은 지난 31일 일본과의 A조 예선 4차전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짜릿한 뒤집기로 8강행을 확정했다.

8강에 오른 유일의 아시아 팀으로 더 센 상대를 만난 한국은 이번에도 극적인 5세트를 연출했다.

한국은 세트스코어 1-1에서 38분간의 혈투를 벌이며 3세트를 가져왔다. 하지만 잇단 실수로 4세트를 내주며 5세트까지 피말리는 승부가 이어졌다.

메리엠 보즈의 막강 화력에 주춤하면서 한때 3-6까지 점수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김희진의 블로킹 득점과 상대의 오버네트 실수 등을 묶어 7-7 동점에 성공했다.

다급해진 터키의 범실로 처음 8-7로 리드를 잡은 한국은 곧바로 동점을 허용했지만, 김희진의 후위 강타로 9-8을 만들었다.

상승세의 길목에서 '서브'가 흐름을 바꿨다. 표승주의 서브 범실 뒤 바로 이어 상대의 서브 에이스가 기록되면서 9-10. 목이 쉬도록 선수들을 독려한 김연경이 결정적인 순간 '월드클래스'의 모습을 보여줬다.

동점을 만든 김연경은 다이렉트 공격으로 리드까지 가져왔다. 또 박은진이 서브로 상대를 흔들자 이에 맞춰 블로킹 득점도 만들었다.

수세에 몰린 메리엠 보즈의 범실까지 나왔고, 한국이 14-11 매치포인트에 이르렀다.

강호 터키도 그대로 물러나지는 않았다.

2점을 추격해오면서 14-13에서 긴장감 넘치는 랠리가 전개됐지만 한국에는 김연경이 있었다. 김연경이 블로킹 벽을 뚫고 대각 공격을 상대 진영에 내리꽂으면서 직접 경기를 마무리했다.

'클러치 박' 박정아가 중요한 순간 16점을 보태줬고, 양효진도 상대의 기를 꺾는 6개의 블로킹은 물론 11득점도 만들었다.

터키의 무시무시한 화력을 온몸으로 막아낸 리베로 오지영은 물론 벤치 멤버까지 모두가 하나가 돼 만든 승리였다. 모든 면에서 에이스였던 김연경이 다시 한번 빛난 승리이기도 했다.

FIVB는 이날 경기가 끝난 뒤 공식 인스타그램에 김연경의 독사진을 올리고 "우리는 말하고 또 말해왔다. 한국 김연경은 10억 명 중 오직 하나다"며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원팀'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은 6일 결승행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30대 중심 연일 산발적 감염

광주, 주점발 확산…누적 55명

감염속도가 빠른 인도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주종으로 자리잡은 광주·전남에서 연일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광주에선 20~30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광산구 주점 관련 연쇄 감염이 지속되면서, 가족·지인 등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확진자 12명(누적 3476명)이 추가됐다. 이 중 9명은 광산구 주점 관련으로 누적 확진자는 55명까지 늘었다. 1명은 제주 확진자의 가족, 나머지 2명은 유증상 검사자다. 광산구 주점 관련해서는 지난달 2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종사자, 방문자, 가족, 지인 등이 연쇄 감염되고 있다. 확진자들이 PC방, 코인 노래연습장, 병원 등을 방문하고 다수의 접촉·확진자를 발생시키면서 지역사회 감염원이 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최근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 유흥업소, 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방역당국은 활동량이 많은 20~30대를 대상으로 개인 모임 자제 등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신규 확진자 9명이 나왔다. 누적 확진자는 2078명이다.

나주와 순천에서 3명씩, 여수 2명, 진도 1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진도에서 나온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염 경로가 확인됐다.

전남도는 (최근 퍼지고 있는)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의 1.64배 수준으로 확진자와 10분 이내 접촉 또는 3m 이상 거리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며,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는 내용의 안전문자 메시지를 도민에게 발송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최초 육교 역사 속으로

중앙육교, 설치 52년만에
시설 노후화로 7일 밤 철거

광주 '1호 육교'인 '중앙육교'가 준공된 지 5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관련기사 6면〉

4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궁동에 있는 중앙육교(길이 17m·폭 3.4m)가 시설 노후화로 오는 7일 밤 11시 철거된다.

중앙육교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학교 앞 육교를 세워주자'는 52년전 광주일보의 캠페인(1969년)에 의해 모인 성금으로 세워진 광주 최초의 육교다.

광주시와 동구가 보관중인 기록(1972년 준공으로 기록)과는 달리, 본보 보도를 확인한 결과 준공일은 1969년 9월 18일이었다.

1960년대 광주 도심은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로 차량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교통사고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1969년 4월 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초등학생이 과속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초등학생 어머니의 호소 이후,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육교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중앙육교는 지어진 지 50년이 지나면서 낡고 노후화된데다, 인근 도심의 쇠퇴로 이용자도 급감했다.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이 만들어낸 산물로,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 약자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동구는 지난해 5월부터 육교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점을 토대로 육교 철거에 나서게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배우 손담비가 선택한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메타그린 골드
메타그린 골드 원포인트
☑ 고지방·고탄수화물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과 콜레스테롤 개선
☑ 항산화와 뼈 건강까지 관리해 부족하기 쉬운 대사 영양 케어
☑ 오설록 농장의 유기농 녹차가 함유된 프리미엄 녹차 정제
"식사 후엔 메타그린 골드를 꼭 챙겨요"
바이탈뷰티
제품 상담 구매 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